말씀의 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3 <창세기 6:17~22>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축구장 크기의 3층짜리 배를 만들어야했습니다. 들어간 나무의 양, 역청이라는 특수재료, 그 엄청난 양을 채취하고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십년간 방주를 짓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최소, 암수로 4000종 이상의 동물들의 식성에 맞는 양식들을 모으고 적재하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자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아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곧 멸망할 세상 앞에 이것은 가장 가치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내야 할 교회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소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방주역할을 해내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노아처럼 마음을 헌신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전제를 또 주십니다.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방주를 지을 때도 말씀 하셨고, 방주를 탈 때 또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를 다닐 때도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전제요 지식이요 신학입니다.

북 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술취함은 단지 육신적이고 행위적인 술취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데'라는 헬라어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는 상태"라는 영적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필요하며 교회를 왜 교회답게 세워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구원의 방주 안에 꼭 타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다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방주에 타는 자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청 6.18 <u>그러나 너외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u>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들어가고 전약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타고 언약을 세우시려고 방주를 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절대 그냥 오신거 아닙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서도 언약 없이, 구원의 확신없이, 하나님과의 아무런 약속도 없이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약이 불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26: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u>언약의 피</u>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릴 살려주시는 확실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예배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약속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교회의 초석입니다.

둘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구절에 나와있는 동사인 "이끌어들여"와 "네게로 나아오리니"는 똑같은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들어가 다"라는 동사원형으로 표기되어있는데, 두 동사가 다 행동 주체가 노아가 아닌 동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획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도원리가 발견됩니다. 언약을 맺을 존재, 구원받을 존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라는 방주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 오는 것처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 원을 위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라앉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내주시면 살려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살아야 할 존재들을 보 내시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시는 모양의 교회, 가라앉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양식을 잘 준비해서 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 6: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꼴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각각 은혜를 끼쳐서 영혼을 살려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풍성한 교회를 우선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교회가 해야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짐승들을 보니 정한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태우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은 쓸어버리시지, 방주에 태우도록 하셨을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처럼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있습니다. 한 논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있고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지금은 다 섞여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예는 오늘 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안에서 맺어지는 성품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좁아터진 속, 시기, 다툼, 분냄, 당 짓는 것, 강퍅함, 변덕, 자기중심적인 모습등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한 성품적 특징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가며 성화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올라갈 수 있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5. 9. 6 이 강화 목사

2015. 9. 13 주일 예바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로마서 8:37~39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예 배 아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mark>있지 않습니다.</mark>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 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